

국감 초점

국회는 8일 지식경제위·국방위·행정안전위·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에서 국정감사를 실시. 고환율에 따른 중소기업 대책과 4·9 총선 당시 논란을 일으킨 서울시 뉴타운 문제, 전직 작전권 환수 및 국방개혁, 북한 핵문제, 서울대 법인화 여부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지경위 “고환율” 수출 기업 지원 대책 있나

◇지경위=이날 코트라(KOTRA)와 한국수출보험공사 국감에서는 고환율로 고통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IMF 이후 10년이 지나는데 환위험관리 시스템조차 구축하지 못한 안일한 정부의 태도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재앙과도 같은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갈광질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태근 의원은 “환율이 1천300원대가 지속될 경우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올 한해 1조2천636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면서 “이는 제2의 코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과위=이날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의 독자적인 법인화 추진에 나선 것과 관련, 지방 국립대의 실정을 무시한 ‘학교 이기주의’라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서울대는 최근 이장무 총장의 임기인 2010년 7월까지 법인화를 이루겠다고 밝힌 데 이어 법인화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전국 국립대학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예상해 법인화를 쉽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교 이기주의에 빠져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은 선도 대학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방위=이날 국방부 국감에서는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10년론’과 민주당의 ‘잃어버린 10개월론’ 공방이 재연됐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는 잘못된 안보관과 안이한 대북상황인식으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트라, 한국수출보험공사 간부들이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과위 서울대 ‘법인화 추진’ 질타

국방위 북핵·‘전작권’ 전환 공방

로 인해 안보불안을 초래했다”며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국방개혁 2020’에 공세를 폈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방부의 ‘무기획특례 체계 개선안’은 수많은 비리사건으로 얼룩진 과거로의 회귀라며 역공을 했다.

한나라당 김성희 의원은 “북한의 예고된 위협은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정치적 노선에 따라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다 보니 병력감축, 복무기간 단축 등 군 전반의 전력구조가 무력화되고 있다”며 “현재 안보상

황과 미래의 군사전력을 반영해 10년간 지속될 수 있는 국방력을 건설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국방개혁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문화상 의원은 “문제점이 발견되는 계획은 당연히 수정해야 하지만 원칙에 입각한 최소한의 보완이어야 한다”고 맞섰다.

안규백 의원은 질의자료에서 “획득체계개선안은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전의 비리 국방부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라며 “개선안대로 하면 각종 비리, 조직분산으로 인

한 책임소재의 불명확, 예산편성과 집행의 분리로 업무의 비능률화가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안위=이날 서울시 국감에서는 4·9 총선 당시 최대 쟁점이었다던 뉴타운 공약과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업무 성과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D)에 자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오 시장에 재선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울시민들의 불신임 의향이 42.8%로서 재선임 38.1%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인기 의원은 “4·9 총선 개입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오 시장의 처신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한 뒤 “뉴타운 원주민 재정착률이 17%에 불과하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검찰 ‘사정 확대설’ 사실로

국감브리핑

압수수색·출금 크게 늘어

검찰의 사정(司法)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올해 들어 수사를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통계 수치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이춘서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검찰의 압수수색명장 청구와 출금금지명장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지난 2003년 4만4천740건이던 압수수색명장 청구건수는 ▲2004년 5만3천472건 ▲2005년 5만5천933건 ▲2006년 6만1천719건 ▲2007년 7만4천653건을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6만5천565건에 달했다.

월평균으로 따져보면 지난 2003년에는 3천728건에 불과했으나 ▲2004년 4천456건 ▲2005년 4천661건 ▲2006년 5천143건 ▲2007년 6천221건을 기록했고 올해 8천195건까지 늘어났다.

출금금지자는 2005년 5천175명이던 것이 2006년 5천306명, 2007년 5천881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4천548명으로 집계되어 추세대로라면 올해 출금금지자는 7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 불법 산림훼손 심각”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8일 산림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광주·전남지역 불법 산림훼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산림 훼손 현황은 ▲지난 2005년 5건(3.50ha) ▲2006년 3건(0.08ha) ▲2007년 6건(0.31ha), 전남지역은 ▲2005년 206건(42.42ha) ▲2006년 202건(55.77ha) ▲2007년 207건(42.38ha)으로 조사됐다. 원인별로는 불법 산지전용이 가장 많았고, 무허가개발, 도벌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경기도의 불법 산림훼손이 가장 많았고 전남지역은 6번째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전남지역에서는 매년 200건 이상 적발되는 등 불법 산림훼손이 그치지 않고 있다”면서 “산림의 중요성을 감안, 불법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균형발전 지자체 평가 광주 2위 전남 8위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2007년 ‘균형발전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광주시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2위, 전남도는 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8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200점 만점 가운데 172.50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165.67점으로 8위에 올랐다.

충북도가 18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인천은 148.83으로 최하위로 기록됐다.

원두커피서 발암성 곰팡이독소 검출

국내 유통 중인 원두커피에서 발암성 곰팡이독소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커피류의 곰팡이독소 함유 실태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유통된 원두커피 210건 가운데 7건에서 발암성 곰팡이독소인 ‘오크라톡신’이 1.3~4.8ppb 농도로 검출됐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이 8일 밝혔다.

또 지난 2006년 ‘식품 중 곰팡이독소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66개 시료를 수거검사한 결과 38개 시료(57.6%)에서 오크라톡신이 검출됐으며 특히 인스턴트 분말 커피의 경우 14건의 시료 모두에서 오크라톡신이 나왔다.

100대 기업 장애인 고용률 고작 1.4%

지난해 100대 기업(상시근로자 기준)의 장애인 고용률이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해진(한나라당) 의원이 8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100대 기업의 노동자 102만명 가운데 장애인 1만4천667명으로 1.4%를 차지했다.

이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밑돌 뿐 아니라 지난해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고용률 1.53%보다 0.09% 포인트 낮은 수치다.

또 중증장애인은 1천446명으로 장애인 노동자의 9.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경·김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www.hanbitgosi.co.kr

공무원 합격의 대세

9급 이론출수반 **7급** 스타트

슈퍼드림팀의 합격신화 / 합격이 말하는 최고의 강의

한빛고시학원

전국 최고의 시설 대형학원! 공무원 수험생은 한빛에 다 있다!

광주 전남대 후문 복구청앞 (062)234-0234

개강 11월 3일

공무원합격 압도적 1위

최단기 정수업그레이드 필수과정 / 주부/대학생/직접인을 위한

한짱단과반 9급 야간특설반

교육행정/농업직/기술직/사회복지/출판직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제18회시험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 전국 수석합격자 배출 (현태환48세·최영아31세)

전국 최강 교수진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TV강의 교수진!

10월 26일 시험대비 시력특강 / 9월 16일 ~10월 5일 2009년도 시험대비반 / 10월 6일 ~10월 18일 최종문제풀이특강

개강 11월 3일 첫진도 시작반 (주·야) / 연회원 수강신청시 수강료 20% 할인혜택(50명) / 주부반·성인반·국비무료 / 교습 재직자반

● 전국 최다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연)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선배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급 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롬행정고시학원**

서구점 ☎361-8111 /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 북구점 ☎268-8111 / 화정이전, 오지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롬빌딩 4층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안내

광고접수 및 문의 / 직통전화: 227-9600, FAX: 227-9500

월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지킴이 **농산물품질관리사**

현재 상담 접수중 - 주말반 -

국가공인 5회시험 / 국가공인 5회시험 /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직종 /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의7에 의해 고용시설에 농림부 자금 지원

수강료 국가 지원 / 고용보험 가입자 수강료의 80% 환급 / 49명 선착순 조기마감 유의

자격취득자 100% 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 ☎(062)236-2468

7.9 급 공무원 합격 강좌

직종별 교재법검정출교보복소기 / 정육무세원찰공관정호지방술

30~40대 주부특별반모집 / 합격실명회, 매일09~19시까지

09년 시험은 지금부터 / 개강 11월 1일(주·야간반모집) / 합격 회원 모집

대목요일 2면어명: 9급 국가직 4월 28일, 7·9급 지방직 5월 18일, 7급 국가직 7·8월 시험 / ※내년 1월: 연말산한 없다 (생활안정, 신년노력)

※수강료가 저렴, 필수합격 확신함.

『無等』은 『공』 합격 환수 있다는 確信을 드립니다!!

www.mdgosi.co.kr / ☎222-4560